

《파페포포 안단테》 펴낸 카툰 작가 심승현

삶에 담긴 '사랑' 들려주는 파페포포 이야기

클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3년 만이다. 사소한 상처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던 이들에게 슬며시 위로를 건넸던 카툰 에세이 '파페포포'가 드디어 돌아왔다. 출간이 '늦어졌다'고 표현하진 못하겠다. 마치 좀더 빨리 나왔어야 할 책이 누군가의 불찰로 미뤄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독자의 기대보다 늦게 출간된 건 사실이다.

《파페포포 안단테》. 제목을 보니 팬스레 느긋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야속하다. 역시 독자들은 많이 기다렸나보다. 출간되자마자 서점가 판매 순위가 오르며 호조를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베스트셀러' 상 위권에 등극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서점가에서 명성을 떨치기 전-작가 심승현 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대했던 아이를 낳은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그를 만났다.

“작년에 동화 《프라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1권과 2권 출간 시기에 비해 좀 늦게 나온 편이죠. 제가 워낙 손이 느려서 그런 탓도 있고요.”

그는 소년 같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했던 카툰 작업. 인터넷 카페에 연재한 파페포포 이야기가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후 그는 곧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전작 《파페포포 메모리즈》 《파페포포 투게더》에서 보여줬던 그의 어린 감수성 그리고 사랑과 인생, 소통에의 성찰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색다른 특징이라면 이번에는 영화를 모티브로 풀어낸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룬다.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지만 몇몇 내용은 《메모리즈》 때 구상했던 것들이예요. ‘전갈과 개구리’, ‘시네마 천국’ 같은 에피소드는 20대 초반에 본 영화 속에서 소재를 잡은 거거든요. 메모장에 적어놓은 것을 1권 때의 콘셉트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따로 모아 놓았다가 이번에 소개했죠.”

그의 대표 캐릭터 파페와 포포가 그간 세인들에게 자주 인사를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작년에 출간된 감성카툰동화 《프라미스 - 눈 많은 그늘 나비의 약속》 탓도 있다. 그림과 글에서 기존 스타일을 벗어난 작품이었다.

“파페포포 시리즈에 비해 반응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프라미스》는 저에게 의미 있는 책이예요. 개인적으로 ‘오래 남을 책’이란 장르로 구분하자면 동화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린왕자》 《나의라임 오렌지

나무》 《꽃들에게 희망을》 같은 책을 감명 깊게 읽었고 그것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처음이라 미약했는데 앞으로도 결심을 접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요.”

그동안의 '파페포포 시리즈'에서 느껴졌던 애잔한 감수성이 조금 달라졌다. 이번 책에서 그는 일이 안 풀려 조금해 질 때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날 때마다 일부러 소리 내어 외쳤다고 한다. 안단테, 안단테... 조용하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이 익숙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면 다스리는 법. 이런 습관은 그에게 음악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구비해놓은 화려한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그의 성향이 드러난다.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호사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홍대 작업실에 앉아 그림 작업에 몰두했던 그는 음악과 영화 감상, 독서, 작업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면 성찰이 있어야만 그의 이야기는 진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때때로 냉정하거나 혹은 비판적이다. 특히 이번 책에 대한 그의 팬카페 '파페포포'의 골수팬들의 반응은 솔직하게 양분된다. ‘느긋하고 긍정적인 심성의 소유자’라면 적합한 느낌일까. 예리하고 날카로운 팬들의 감상을 대하면서 그는 그저 웃음지어 보았다.

“내가 많이 성숙해졌다면 ‘더 낡은 안단테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은 나름대로 마음이 좋아지는 장면들이 있어요.”(웃음)

전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작품이 다룬 공통된 주제는 관계, 소통, 사랑이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보다 더딘 내면의 변화 때문에 흑여 주제를 벗어나거나 지치지 않을까 염려했다.

“전 모든 주제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살아가면서 표현하고 싶은 주제는 궁극적으로 ‘사랑’ 하나인데 그것들이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자연, 사람, 사랑을 다룰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사랑이죠.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고...”

출판사에서 만난 아내와 갓 태어난 새로운 식구 아들. 그는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장면을 그리려고 한다. ‘자연이 곧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살이를 바라보는 그.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에서 인생의 진리를 길어 올리는 중이다. **주필**

